

## 1 오노가와 강 통선과 어도터

에도 시대(1603~1868년) 후기부터 메이지 시대(1868~1912년)에 걸쳐 오노가와 강에는 통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폭포만큼은 배로 건너지 못해 사람과 짐은 여기서 옮겨 실었습니다. 은어같은 회유어도 이 폭포를 넘을 수 없었지만 1913년에 폭포의 위아래를 터널과 다리로 이어 은어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어도를 만드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노란 선 부분이 어도였다고 생각됩니다



## 2 진다 발전소터

진다 폭포에서는 폭포의 낙차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였습니다. 1909년 폭포 위에 독을 만들어 발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전기는 오이타와 벳푸 간 노면 전차로 보내져 일본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후 독의 높이를 더욱 높여 발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한편에서는 물살에 의해 폭포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낙수를 멈춘 탓에 폭포의 경관은 손상되어 버렸습니다.



구 발전소 조업 당시

※현재의 발전소는 2km 정도 하류로 옮겨진 것입니다.

## 경관 복원 공사

지역 사람들은 폭포의 부활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단순한 암벽으로 변한 폭포는 1996년 마침내 부활했습니다. 규슈 전력이 더 이상 절벽이 붕괴되지 않도록 대규모 공사를 하였고 '수직으로 나뉘어 13줄기를 이룬다' 라고 써 있는 셋슈의 진다바쿠즈(진다 폭포도)를 참고 하여 경관 복원 공사를 하였습니다.



낙수가 없던 무렵의 진다 폭포

# 아소의 대분화로 탄생하여 근대화에 활용되었다

진다 폭포를 형성하고 있는 암석은 9만년 전 아소산 대분화의 화쇄류에 의해 생긴 것입니다. 아소 용결 응회암이라 불리는 화쇄류가 식으면서 굳어진 바위로 수직 방향으로 무수한 균열이 생겨 이러한 경관을 낳게 되었습니다. 세로 방향으로 바위가 무너져 내리면서 수직으로 깎인 벼랑이 만들어 졌으며 이것이 분고오노 지오パーク의 특징적인 경관 중 하나입니다.

자연에 있는 바위를 잘 활용한 것은 좋았는데 한때는 폭포가 없어지고 말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것을 다시 사람들 손으로 폭포로 되돌려 냈어.



지오 가이드

제방

수컷 폭포

1



포토존  
표지 사진은  
여기에서  
촬영하였습니다.

오노가와 강

발발 주의

발전용수 방수구

2

포토존  
진다 발전소터와  
수컷 폭포를 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

화장실

대형 버스 주차장

히라이가와 강

암컷 폭포

약 600년  
전에 그린  
수목화와  
어디가 다른  
것일까?

거장이 그린 유명한 폭포



셋슈의 '진다바쿠즈(진다 폭포도)' (복제) 분고오노시 오노 출장소 소장



포켓 파크